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강신기*, 조성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and retirement attitudes of middle-aged on the recognition of the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Shin-Kee Kang*, Sung Sook Cho**

The Doctoral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앞으로 은퇴생활을 시작하게 될 중년층의 재무교육 여부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들 간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층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t-test, 일원 분산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내용은 퇴직을 앞둔 중년층의 휴식으로서의 전환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의 상관관계와 새로운 시작, 일의 계속, 강요된 분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소득과 직업경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년층의 재무교육이 영역별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냄으로써 사전 퇴직교육과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퇴직태도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과 가정의 안정 및 경제적인 면과 건강상태, 여가활동 등의 영향요인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주제어 : 중년층, 재무교육, 은퇴, 퇴직태도, 노후준비인식

Abstract This study shows how financial education for middle-age affects their remaining life (economic,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and improves the way of preparing for their old age through 355 questionnaires using SPSS 18.0, factor analysis, t-test and ANOVA program.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has been differently perceived by the age, marital status, income and religion. Secondly, the necessity for early financial educ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have been comprehended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education on their old life. Thirdly, Attitude for retirement has affirmative effects on the self respect, economic stability and leisure activity.

Key Words : Middle Aged, Financial Education, Retirement, Attitude for Retirement, Recognition of the preparing their old age

Received 30 September 2013, Revised 24 October 2013

Accepted 20 Nov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Sung-Sook Cho(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Email: sscho49@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압축고령화”라는 신조어로 대변될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1970년에는 3.1%에 불과한 고령화율이, 2000년에는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으며, 2010년 기준 11.0% , 향후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복지잠재력의 약화, 개인의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생애주기 상 노년기에는 신체적 건강 약화로 의료비 등 재무적인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급감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년층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국내 중년층의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의 경제위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개인의 경쟁력 및 사회경쟁력을 약화시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때보다 중년층에 대한 재무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무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마저도 청소년 대상의 재무교육 확대에만 주력한 결과 중년층에 대한 재무교육 혜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반면 미국은 재무교육을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여 재무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미국 내 기업체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 의사결정과 연금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근로자들이 재무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결국 재무교육을 잘 받은 중년층들은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적 안정감과 복지도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재무교육이 개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재무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중년층의 노후준비 인식

및 노후 준비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재무교육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재무교육 요구분석[3], 재무 설계,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4][5], 개인재무교육의 효과분석[6], 재무교육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7][8][9]등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들에서는 재무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재무교육을 받은 중년층의 퇴직태도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무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10].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재무교육 유무여부와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년층의 은퇴준비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중년층

중년층은 인간의 생애주기 상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면서 노후준비를 하여 인생후반부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중년층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 구분이 다르며 연구관점에 따라 생애주기 상 전환의 시기, 성숙의 시기, 위기의 시기 등 다양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 Havighurst[11]는 중년층을 생애주기 6단계 중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이르며,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를 느끼는 시기로 대략 30세~60세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김명자[12]는 중년층을 40~59세 시기로 개인적 발달 관점, 가족생활 주기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Levinson [13]는 중년층은 40~60세 시기로 신체적 능력은 다소 감소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지는 시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중년층을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이르는 시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2.2 재무교육

초 고령화 사회에 개인이나 가계가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인생주기에 맞추어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올바른 재무지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최근 외부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개인재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14]. 재무교육은 소비자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개발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3], 소비자들의 재무 행동 능력을 키우고 재무복지 증진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5]. Garman 등의 연구에서는 직장 재무교육 참여자의 75%가 재무의사 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16], 안창희에 의하면 재무교육은 재무실천 행동, 주·객관적 경제복지, 재무위험감수도 등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소비자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 비해 재무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10][14].

2.3 퇴직태도

2.3.1 퇴직의 정의

가. 퇴직(은퇴)의 개념

은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많은 연구들이 은퇴(retirement)라는 표현을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퇴직은 고용관계의 단절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은퇴는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17]. Atchley [18]는 “은퇴는 개인이 전일제(full time)보다 적게 고용되고, 그의 수입이 이전 직업에 봉사했던 기간을 통해 획득한 퇴직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55세 이상의 자로서 지난 1년간 전일제(full time)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1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 [20][21][22]은 퇴직과 은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과 은퇴의 개념을 퇴직을 포함한 은퇴(retirement)로 일원화하고 은퇴와 퇴직을 동일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나. 퇴직태도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Gee and Baillie[23]가 Hornstein and Wapner[24]의 은퇴기대양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1) 휴식으로의 전환(transition to rest)

은퇴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닌 인생의 휴식기로 여기며 단계적인 활동축소 또는 일로부터 이탈하여 쉬면서 노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본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은퇴는 은퇴 전의 긴장으로 가득 찬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휴식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시기로 받아들인다.

2)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

은퇴를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으로 본다. 즉 은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시기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여긴다.

3) 일의 계속(continuity)

은퇴를 일의 지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며 은퇴란 시작도 끝도 아닌 아무런 사건도 아니라고 여긴다.

4) 강요된 분열(imposed disruption)

은퇴를 직업역할의 상실로 여기며 은퇴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은퇴는 좌절감 및 상실감을 주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직업의 상실은 정체감의 핵심부분 상실로 받아들이며 은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며 일을 대신할 어떤 것도 없다고 여긴다.

2.4 노후준비 인식

노후준비란 ‘노후를 미리 준비 한다’는 의미로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및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25]. 초기의 노후준비 개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부양을 의미하였다면 최근에는 노후준비를 다차원적 영역으로 나누어 개념화하는 영역 서비스적 준비로 확대되고 있다. 중년층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학자들마다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으로 구분[26][27][28]하였으며, 이정화[27]는 신체적 준비, 사회적 준비, 경제적 준비

로 황승일[29], 양순미·홍숙자[30]는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 준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렇듯 노후준비를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는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사회적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4.1 경제적 노후준비

노년기에는 소득은 급속하게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증가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은 선진국에 비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과 기대되는 수입 예산액을 계산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25].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노후자금의 적정성[31][32], 주관적인 노후준비 차원의 연구 등이 있다[30][33]. 노년기의 경제력은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심리·정서적 만족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34].

2.4.2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란 매일의 꾸준한 노력과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노년기에도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노년기의 육체적 건강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즉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노후생활의 삶의 질 및 만족여부를 좌우하는 요소이다[35]. 노인의 신체적 준비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가 높으며[34], 신체적 건강문제가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36][37]. 김미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노후대책을 세울 때 건강에 가장 큰 비중을 두지만 실제로 노후건강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8]

2.4.3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1인 가구(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노인들의 심리적 고립이나 소외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세대

간 교육수준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노인들을 가족과 집안일의 결정에서 배제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39].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가족활동을 제외한 사회활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40][41],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년기부터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9]. 김애순[42]은 우리의 인생주기 어느 시점에서나 일, 교육, 여가가 균형을 이룬 연령통합사회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양순미[43]는 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서적 돌봄이 경제적 돌봄 및 동반자의식이 경제적 돌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집단이 신체적, 정서적 준비가 더 잘된 것으로 나타났다.[29] 따라서 중년기부터 봉사 활동, 사회적 지지, 일, 여가, 종교 등이 균형을 이루는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3.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재무 설계 교육과 퇴직태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개인재무교육은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개인재무교육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개인재무교육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개인재무교육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퇴직태도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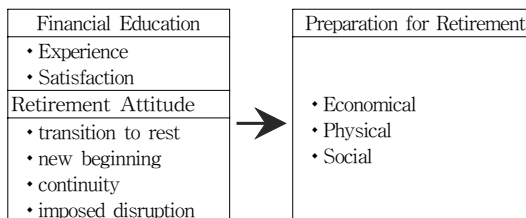
가설 2-1. 휴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새로운 시작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일의 계속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강요된 분열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5. 휴식으로의 전환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6. 새로운 시작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7. 일의 계속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8. 강요된 분열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9. 휴식으로의 전환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0. 새로운 시작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1. 일의 계속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2. 강요된 분열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재무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재무교육 요구분석, 개인재무교육 현황 분석[3][44] 등이 대부분이며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라이프스타일[45][46]이나 직업이나 직장생활과의 관계[47][48]를 주로 다루어 호모 헨드레드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을 제고시키며 중년층의 재무교육과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년층에 대한 재무교육 정책 제언 및 효율적 은퇴준비의 접근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대상은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은퇴플랜과 재무교육 및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대안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4월 8일부터 2013년 5월 4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의 금융권과 비금융권(금융권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직종 종사자 및 주부, 무직자 포함)을 대상으로 412부의 설문지와 동의서를 받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무성의한 응답, 결측치가 있는 응답과 연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57부를 제외한 최종 355부(86.2%)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정하였다.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추출방법은 임의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상관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방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3.4 측정도구

3.4.1 재무교육

안창희[10]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측정항목으로는 재무교육 경험 유무 1항목, 교육 프로그램 4항목, 교육시간 및 횟수 2항목, 교육방법 및 영역 4항목, 교육만족도 부문 4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재무교육 참여여부 및 재무만족도만 측정하였다. 재무교육은 소비자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개발시키는 과정이라는 관점[3]에서 보면 4시간 이상 재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의 통계분석 대상으로 편입하였다.

3.4.2 퇴직태도

신계수[48], 배문조[4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휴식으로의 전환 6문항, 새로운 시작 6문항, 일의 계속 5문항, 강요된 분열 11문항, 총 28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

여 재구성하였다.

3.4.3 노후준비인식

김주성[46], 배문조[4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9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8문항,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10문항, 총 27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변수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 종교 유무,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하였다.

3.5 연구대상의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인 성과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직업, 종교 유무, 건강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Item	N	%
Gender	Female	187	52.7
	Male	168	47.3
Age Group	Forties	221	62.3
	Fifties	134	37.7
Marital Status	Single	16	4.5
	Married	321	90.4
	Divorce/Seperation	8	2.3
	Bereavment	10	2.8
Education	Middle School	12	3.4
	High School	89	25.1
	College	32	9.0
	Under-graduate	181	51.0
	Graduate School	41	11.5
Financial	Financial	199	56.1
	Non-financial	156	43.9
Employment	Employed	238	67.0
	Self-employed	91	25.7
	Etc	26	7.3
Monthly Income	Under 200M won	53	14.9
	200-350M won	63	17.7
	350-500M won	110	31.0
	500-650M won	49	13.8
	Over 650M won	80	22.5
Career*	Under 5 years	24	6.8
	5-10 years	28	8.0
	10-15 years	58	16.5
	15-20 years	116	33.0
	Over 20 years	129	36.3
Religion	No	158	44.5

	Yes	197	55.5
Health	Very Health	23	6.5
	Healthy	190	53.5
	Usually	129	36.3
	bad	13	3.7
	Very Bad	0	0.0
Total		355	100.0

4. 연구결과

4.1 연구 개념의 신뢰도 검증

다음으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항목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항목분석(Item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분석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Alpha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변수에서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Sub-Variable	Cronbach's α
Attitude for Retirement	Transition to rest	.888
	New beginning	.886
	Continuity	.770
	Imposed disruption	.941
Preparation for Retirement	Economical	.608
	Physical	.812
	Social	.798

4.2 연구 개념의 타당도 검증

타당도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하는 개념으로 측정도구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즉,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을 말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검정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 검정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KMO 값이 퇴직태도, 노후준비, 모두 0.8 이상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남으로써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베리맥스 방식으로 회전시켰다. 요인이 전반적으로 설문지에서 구성한대로 잘 묶였지만, 퇴직태도에서 일의 계속2(“퇴직은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과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일의 계속3(“퇴직은 휴식보다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항목이 ‘일의 계속’ 요인이 아닌 ‘새로운 시작’ 요인에 묶였다. 이 두 개 항목은 연구자의 판단 하에 ‘새로운 시작’ 요인에 편입시켰다.

한편, 노후준비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5개 항목을 제외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누적변량은 5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엄격한 기준 값인 60%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55.981%로 다소 관대한 기준 값인 50% 이상의 분산설명력을 보여, 5개 항목을 제외한 척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Attitude for Retirement

Item	Factor					h ²
	1	2	3	4		
1-1	.167	.035	.830	-.017	.718	
1-2	.108	.076	.862	-.045	.763	
1-3	.026	.182	.746	-.029	.592	
1-4	.015	.222	.743	.131	.619	
1-5	.055	.128	.799	.017	.659	
1-6	.150	-.048	.734	.038	.566	
2-1	.027	.741	.099	-.163	.585	
2-2	-.017	.739	.188	.001	.582	
2-3	-.061	.811	.144	.013	.683	
2-4	-.020	.843	.013	-.018	.711	
2-5	-.098	.821	.096	.032	.695	
2-6	-.117	.793	.051	.099	.655	
3-1	.233	-.024	.041	.742	.607	
3-2	-.065	.524	.156	.294	.389	
3-3	-.012	.582	-.079	.199	.384	
3-4	.023	.151	.023	.847	.741	
3-5	.027	.102	-.014	.825	.692	

4-1	.599	.127	-.164	-.073	.407
4-2	.758	.010	-.021	.071	.580
4-3	.841	-.062	-.020	.063	.716
4-4	.803	-.099	.145	.090	.684
4-5	.819	-.062	.136	.079	.699
4-6	.848	-.058	.135	.033	.742
4-7	.849	-.084	.118	.001	.742
4-8	.803	-.035	.148	.012	.668
4-9	.715	-.020	.238	.088	.577
4-10	.843	-.090	.099	.022	.729
4-11	.810	-.088	-.016	.041	.666
Eigen Value	7.073	4.582	4.019	2.174	
% of Variance	25.262	16.364	14.355	7.765	
Cumulative %	25.262	41.626	55.981	63.746	

KMO Measure = 0.892
Bartlett $\chi^2=6334.826$, df=378 p=0.000
*p<.05, **p<.01, ***p<.001

- * 1. Transition to rest
- * 2. New beginning
- * 3. Continuity
- * 4. Imposed disruption

〈Table 4〉 Factor Analysis

Item	Factor				h ²
	1	2	3		
Economical 1	.331	.139	.528	.408	
Economical 2	.273	.091	.538	.372	
Economical 3	.074	-.063	.579	.345	
Economical 4	-.135	.152	.658	.474	
Economical 5	-.049	.293	.669	.535	
Physical 2	.798	.118	.124	.666	
Physical 3	.608	.004	.068	.375	
Physical 4	.735	.129	.005	.556	
Physical 5	.584	.079	.076	.353	
Physical 6	.668	.223	-.011	.496	
Physical 7	.523	.241	.078	.338	
Physical 8	.735	.177	.112	.583	
Social 1	.365	.519	-.021	.402	
Social 2	.217	.623	-.073	.440	
Social 3	.092	.571	.124	.350	
Social 4	.131	.668	.029	.464	
Social 5	-.007	.471	-.005	.222	
Social 6	.045	.648	.154	.445	
Social 7	.202	.638	.223	.498	
Social 8	.142	.596	.215	.422	
Social 9	.069	.453	.072	.215	
Social 10	.198	.460	.307	.345	
Eigen Value	5.535	3.769	2.612		
% of Variance	25.159	17.134	11.872		
Cumulative %	25.159	42.293	54.165		

KMO Measure = 0.820
Bartlett $\chi^2=2357.552$, df=231, p=0.000
*p<.05, **p<.01, ***p<.001

4.3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의 기술통계량인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퇴직태도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휴식으로의 전환은 2.83, 새로운 시작은 3.59, 일의 계속은 2.98, 강요된 분열은 2.6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휴식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시작, 강요된 분열과 양(+)의 상관관계를, 새로운 시작은 일의 계속과 양(+)의 상관관계, 일의 계속은 강요된 분열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 and Correlation of Attitude for Retirement

Variable	M	SD	1	2	3	4
1.transition to rest	2.83	.891	1			
2. new beginning	3.59	.690	.218**	1		
3. continuity	2.98	.878	.062	.150**	1	
4. imposed disruption	2.61	.841	.194**	-.101	.153**	1

** p<0.01, * p<0.05

다음으로 노후준비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는 3.44, 신체적 노후준비는 3.44,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3.4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 and Correlation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Variable	M	SD	1	2	3
1. Economical	3.44	.654	1		
2. Physical	3.44	.583	.379**	1	
3. Social	3.42	.582	.377**	.986**	1

** p<0.01, * p<0.05

4.4 개인재무교육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4.4.1 가설1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재무교육 실시 여부를 더미변수 화 하였다. 재무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1, 재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0

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 화 하였다.

가설1 : 개인재무교육은 노후준비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개인재무교육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무교육 여부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여부를 독립변수로,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23.539(p<0.001)으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328로 나타나, 재무교육 여부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on Econom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3.258		65.247
Financial Education†	.328	.250	4.852***
R ² =0.063 Adjusted R ² =0.060 F=23.539 P=0.000			

*** p<0.001, † Dummy - Experienced: 1, Not Experienced: 0

한편, 재무교육 만족도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15.004(p<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199로 나타나, 재무교육 만족도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ffect of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on Econom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2.779		13.062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199	.270	3.874***
R ² =0.073 Adjusted R ² =0.068 F=15.004 P=0.000			

*** p<0.001

1-2. 개인재무교육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무교육 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여부를 독립변수로,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12.347($p < 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215로 나타나, 재무교육 여부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o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3.324		73.680
Financial Education†	.215	.184	3.514***
R ² =0.034 Adjusted R ² =0.031 F=12.347 P=0.000			

*** $p < 0.001$, † Dummy - Experienced: 1, Not Experienced: 0

한편, 재무교육 만족도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8.718 ($p < 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136으로 나타나, 재무교육 만족도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Effect of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o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2.986		15.611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136	.209	2.953**
R ² =0.044 Adjusted R ² =0.039 F=8.718 P=0.004			

** $p < 0.01$

1-3. 개인재무교육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무교육 여부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13.901

($p < 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227 나타나, 재무교육 여부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on Soci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3.299		73.436
Financial Education†	.227	.195	3.728***
R ² =0.038 Adjusted R ² =0.035 F=13.901 P=0.000			

*** $p < 0.001$, † Dummy - Experienced: 1, Not Experienced: 0

한편, 재무교육 만족도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8.032($p < 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130으로 나타나, 재무교육 만족도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Effect of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on Soci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2.997		15.732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130	.201	2.834**
R ² =0.040 Adjusted R ² =0.035 F=8.032 P=0.005			

** $p < 0.01$

4.5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4.5.1 가설2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가설 2 : 퇴직태도는 노후준비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휴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새로운 시작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일의 계속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강요된 분열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2-4를 검증하고자 퇴직태도의 각 하위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와 같이 회귀모형은 F값이 31.850(p<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²=0.259로 나타나 25.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검증 결과 4개의 독립변수 중,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시작, 2개의 독립변수만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시작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휴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1과 2-2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2-3과 2-4는 기각되었다.

<Table 13> Effect of Retirement Attitude on Econom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2.352		11.416
Transition to rest	-.234	-.319	-6.615***
New beginning	.473	.500	10.370***
Continuity	-.027	-.037	-.776
Imposed disruption	.048	.062	1.297
R ² =0.267 Adjusted R ² =0.259 F=31.850 P=0.000			

*** p<0.001

- 2-5. 휴식으로의 전환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6. 새로운 시작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7. 일의 계속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8. 강요된 분열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2-8을 검증하고자 퇴직태도의 각 하위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이 회귀모형은 F값이 30.279(p<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²=0.249로 나타나 24.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검증 결과 새로운 시작, 강요된 분열, 2개의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시작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강요된 분열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6과 2-8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5와 2-7은 기각되었다.

<Table 14> Effect of Retirement Attitude o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2.703		14.603
Transition to rest	-.004	-.006	-.116
New beginning	.331	.392	8.083***
Continuity	.023	.034	.723
Imposed disruption	-.196	-.283	-5.855***
R ² =0.258 Adjusted R ² =0.249 F=30.279 P=0.000			

*** p<0.001

- 2-9. 휴식으로의 전환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0. 새로운 시작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1. 일의 계속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2. 강요된 분열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2-12를 검증하고자 퇴직태도의 각 하위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이 회귀모형은 F값이 29.852(p<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²=0.246으로 나타나 24.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검증결과 새로운 시작과 강요된 분열만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시작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강요된 분열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10과 2-12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2-9와 2-11은 기각되었다.

<Table 15> Effect of Retirement Attitude on Soci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nstant)	2.681		14.490
Transition to rest	-.011	-.017	-.351
New beginning	.337	.400	8.231***
Continuity	.016	.024	.502
Imposed disruption	-.187	-.270	-5.586***
R ² =0.255 Adjusted R ² =0.246 F=29.852 P=0.000			

*** p<0.001

4.6 개인특성이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4.6.1 가설3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금융권 여부, 종교별 차이 분석은 t-검정을,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가설3 : 개인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특성별로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평균 비교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은 연령, 학력, 금융권 여부, 월평균 소득, 직업 경력,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금융권이 비금융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과 경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은 학력, 금융권 여부, 월평균 소득, 종교 유무,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학력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금융권이 비 금융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고 건강한 사람이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은 최종학력, 금융권 여부, 월평균 소득, 종교 유무,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우선 학력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금융권이 비 금융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특성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에 먼저 범주형 변수를 더미변환해줄 필요가 있는데, 성별, 결혼여부, 금융권 여부, 자영업 여부, 종교 여부는 더미변환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여자를 1, 남자를 0으로, 결혼여부는 기혼을 1, 미혼 및 기타를 0으로, 금융권 여부는 금융권을 1, 비금융권을 0, 자영업 여부는 자영업을 1, 비자영업을 0, 종교여부는 '종교 있음'을 1, '종교 없음'을 0으로 변환하였다.

더미변환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학력, 금융권 여부,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B값은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즉, 금융권일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 건강상태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적 노후준비에는 성별, 학력, 종교,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B값은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즉, 여자(1)가 남자(0)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1)이 종교가 없는 사람(0)보다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과 건강상태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able 16〉 Preparation for Retirement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Economic			Physical			Social		
		Mean	Statistic(p)	Scheffe	Mean	Statistic(p)	Scheffe	Mean	Statistic(p)	Scheffe
Gender	Female	3.40	t=1.108	-	3.49	t=1.506	-	3.45	t=0.829	-
	Male	3.48	(0.269)		3.39	(0.133)		3.40	(0.408)	
Age Group	Forties	3.53	t=3.436	-	3.45	t=0.421	-	3.43	t=0.504	-
	Fifties	3.29	(0.001)		3.42	(0.674)		3.40	(0.607)	
Marital Status	Single(a)	3.36	F=0.272 (0.846)	-	3.26	F=1.158 (0.326)	-	3.29	F=0.891 (0.446)	-
	Married(b)	3.44			3.44			3.42		
	Divorce/Speration(c)	3.30			3.47			3.44		
	Bereavment(d)	3.54			3.70			3.67		
Education	Middle School(a)	3.08	F=3.449 (0.009)	a<e	2.99	F=3.443 (0.009)	a<c,e	2.92	F=4.048 (0.003)	a<c,d,e
	High School(b)	3.32			3.39			3.35		
	College(c)	3.35			3.55			3.52		
	Under-graduate(d)	3.48			3.43			3.43		
	Graduate School(e)	3.69			3.64			3.61		
Financial Group	Financial	3.53	t=3.995	-	3.48	t=2.067	-	3.47	t=2.167	-
	Non-financial	3.24	(0.000)		3.35	(0.039)		3.32	(0.031)	
Employment	Employed(a)	3.51	t=1.566	-	3.41	t=-1.744	-	3.40	t=-1.290	-
	Self-employed(b)	3.38	(0.118)		3.53	(0.083)		3.49	(0.198)	
Monthly Income (won)	Under 200M (a)	3.12	F=6.610 (0.000)	a<d,e	3.25	F=3.075 (0.016)	a<e	3.20	F=3.595 (0.007)	a<e
	200-350M(b)	3.34			3.48			3.46		
	350-500M(c)	3.46			3.42			3.39		
	500-650M(d)	3.48			3.40			3.42		
	Over 650M(e)	3.68			3.59			3.58		
Career	Under 5(a)	3.24	F=4.190 (0.003)	b<e	3.38	F=1.155 (0.331)	-	3.36	F=1.185 (0.317)	-
	5-10 years(b)	3.13			3.36			3.35		
	10-15 years(c)	3.32			3.35			3.32		
	15-20 years(d)	3.45			3.43			3.41		
	Over 20 (e)	3.58			3.52			3.50		
Religion	No	3.39	t=-1.090	-	3.31	t=-3.933	-	3.30	t=-3.700	-
	Yes	3.47	(0.277)		3.55	(0.000)		3.52	(0.000)	
Health	Very Health(a)	3.77	F=11.768 (0.000)	c<a	3.95	F=12.826 (0.000)	b,c,d<a	3.94	F=13.338 (0.000)	b,c,d<a
	Healthy(b)	3.57			3.51			3.49		
	Usually(c)	3.19			3.24			3.22		
	Bad(d)	3.42			3.45			3.43		

〈Table 17〉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Retirement Preparation

Variables	Economic				Physical				Social			
	B	β	t	p	B	β	t	p	B	β	t	p
(Constant)	2.042		5.822	.000	1.877		5.993	.000	1.837		5.881	.000
Gender	.110	.084	1.389	.166	.179	.154	2.545	.011*	.142	.122	2.022	.044*
Age Group	-.124	-.091	-1.560	.120	.000	.000	-.002	.998	.018	.015	.254	.800
Marital Status	.038	.017	.328	.743	.031	.015	.301	.764	.001	.001	.010	.992
Education	.076	.126	2.172	.031*	.088	.164	2.817	.005**	.097	.181	3.114	.002**
Financial Group	.165	.117	2.118	.035*	.093	.074	1.332	.184	.101	.081	1.463	.144
Non-Financial Group	.003	.002	.034	.973	.089	.067	1.202	.230	.071	.054	.967	.334
Monthly Income	.057	.118	1.884	.060	.046	.105	1.692	.092	.048	.112	1.796	.073
Career	.052	.095	1.693	.091	.015	.030	.541	.589	.007	.015	.264	.792
Religion	.091	.069	1.347	.179	.211	.180	3.510	.001***	.205	.175	3.420	.001***
Health	.220	.221	4.376	.000***	.203	.229	4.514	.000***	.208	.235	4.626	.000***
R ²	0.172				0.163				0.163			
F	7.077				6.645				6.664			

*** p<0.001, ** p<0.01, * p<0.05

마지막으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는 성별, 학력, 종교,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B값은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즉, 여자(1)가 남자(0)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1)이 종교가 없는 사람(0)보다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 건강상태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7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모두 검증되었으며, 가설 2는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시작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새로운 시작, 강요된 분열은 신체적 노후준비 및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설 3에서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은 학력, 금융권 여부,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은 성별, 학력, 종교,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에 따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은 성별, 학력, 종교,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의 재무교육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재무교육 여부와 재무교육 만족도는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모두 유의미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층의 퇴직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휴식으로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시작은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정(+),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일의 계속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으며 강요된 분열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부(-)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은 금융권일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 건강상태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은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과 건강상태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개인특성에 따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은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 건강상태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 컨설팅과 재무교육이 전반적인 노후준비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 반면 본 연구는 중년층의 재무교육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일의계속, 강요된 분열 등의 퇴직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 그리고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퇴직교육과 재무교육 및 퇴직 후 사회적 약자에서 있는 중년층을 위한 은퇴준비의 구체적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요인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역별 노후준비 인식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와 50대 후반의 금융권과 비 금융권(금융권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직종 종사자 및 주부, 무직자 포함)을 대상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차기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 또는 직업별로 세분하고 특수지역거주자와 특수계층 종사자 그리고 농촌과 어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Elderly Statics, 2011
- [2] EBRI(Employee Benefits Research Institute), The 1998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RSC) summer of findings. Washington, D.C.: Employee Benefits Research Institute. <http://ebri.org/rsc/1998>.
- [3] H. S. Hong, K. C. Lee, Needs Assessment of the Married Women for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 vol. 15, No. 1, pp. 53-69, 1997.
- [4] Other J. H. Yoon, Research Directions of Planning, Counseling, and Education of Personal Finance for Practical Program Development,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vol. 12, no. 3, pp. 89-108, 2001.
- [5] I. J. Seo, K. J. Doo,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onsumer's Education Program in Using Credit Card,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 vol. 41, no. 12, pp. 117-132, 2003.
- [6] C. H. Ahn, S. H. Joung, The Effects of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on the Financial Behaviors and Objective Economic Well-Being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vol. 17, no. 2, pp. 197-219, 2006.
- [7] J. P. Bayer. D. B. Bernheim, & K. J. Scholz,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employ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5655. From: [http:// www.nber.org/paper/w5655](http://www.nber.org/paper/w5655), 1996.
- [8] J. P. Bernheim, D. B. & D. M. Garrett,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pp. 1467-1519, 2003.
- [9] M. Grinstein-Weiss, M. & Schreiner, M: Education and savings outcomes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Working Paper 01-2, 2001.
- [10] C. H. Ahn The Effects of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on the Financial Behaviors, Subjective/ Objective Economic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11] R. 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Y: David Mackay, 1972.
- [12] M. J. Kim, *Midlife Development*, Seoul, HAKJISA PUBLISHER, 1998.
- [13] D. J. Levinson, *The Seasons of a Man's Life* , NY: Notron, 1978.
- [14] Y. A. Sung, *An Analysis on the Needs and Preference for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Counseling*,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vol. 23, no. 2, pp. 85-105, 2012.
- [15] Arnone, J. William, Selling the value of employee financial education management, presented at personal finance employee education conference. Virginia Tech, Roanoke, Virginia, 1999.
- [16] E. T. German, J. Kim, C. Y. Kratzer, B. H. Brunson, & S. H. Joo.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improves personal financial wellnes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1), pp. 79-88, 1999.
- [17] Other S. J. Lee ,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for successful preparation of third 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Policy Report, XIV, no. 24, pp. 125-158, 2008.
- [18] R. C. Atchley,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6th ed.), Belmont, CA: Wadsworth, 1991.
- [19] S. J. Choi, I. H. Jang, *Aging Society, The Elderly Welfare*, Seoul National Press Council, 2010.
- [20] J. Yoon, *Adult Eldery Psychology*, CENTRAL APTITUDE PUBLISHER, 1985.
- [21] Other S. I. Kim , Retired teacher education programs to prepare for ag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Project, 1999.
- [22] Other D. M. Choi , A Study on the Educational

- Model Development for Pre-retiree based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 vol. 28, no. 1, pp. 257-281, 2001.
- [23] S. Gee, & J. Baillie, Happily ever after? An exploration of retirement expect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vol. 25, no. 2, pp 109-128, 1999.
- [24] G. A. Hornstein, & S. Wapner, Modes of experiencing and adapting to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n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21, no. 4, pp. 291-315, 1985.
- [25] C. J. Park,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0, no. 3, pp. 275-297, 2008.
- [26] Y. J. Kang, A Study on Korean Adults' Planning for Old Ag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16, no. 4, pp. 159-174, 2005.
- [27] J. H. Lee,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Financial &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0, no. 20, pp. 275-289, 2009.
- [28] M. J. Bae, K. Y. Jeon , Study on the Perception and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8, no. 1, pp. 13-24, 2010.
- [29] S. I. Hawang, A Study on the Attitude of Elderly Life and Preparation for Elderly Life of the Young-Aged,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0.
- [30] S. M. Yang, S. J. Hong, The Later Prepara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in the Middle Rural Woma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0, no. 6, pp. 141-149, 2002.
- [31] Y. K. Yuh, Retirement wealth adequacy of Korean middle-class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5, no. 1, pp. 21-36, 2005.
- [32] Other Y. K. Yuh ,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Cultural Consumption* , vol. 10, no. 3, pp. 129-155, 2007.
- [33] M. J. Bae, K. Y. Jeon , The Effect of Variables on Attitude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 vol. 42, no. 7, pp. 89-102, 2004.
- [34] Other S. H. Hong , Life Planning Program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 vol. 36, no. 10, pp. 1-22. 1998.
- [35] H. K. Choi, Family Elder Care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Elderly, *Elderly Research*, vol. 10, Winter Issue, pp. 141-164, 2000.
- [36] K. J. Lim, Effects of Middle Aged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ir Middle Age Life's Crisis-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2.
- [37] J. S. Lim, City ordinances regarding measures of retirement research,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0.
- [38] M. G. Kim, A study of middle age people preparation plan for their old age, *Seo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2.
- [39] Y. E. Kim, C. W. Lee, A Study on Preparation level for old age of middle-ag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19, pp. 55-82, 2008.
- [40] H. B.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aged ,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 vol. 29, fall issue, pp. 203-235, 2005.
- [41] I. S. You,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Behaviors for the Old Ag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245-262, 2012.
- [42] A. S. Kim , *Adult Development and Life Design* Seoul, SIGMA PRESS, 2002.
- [43] S. M. Yang, The relations of long-term care insurance awareness and aged parent-supporting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9, no. 5, pp. 45-54, 2011.
- [44] Y. A. Sung, An Analysis on the needs and preference for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counselling,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vol. 23 no. 2, pp. 85-105, 2012.
- [45] H. L. Choi, Influence of the middle aged adults'

- life style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n the preparation of life in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Kore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1.
- [46] J. S. Kim, The Effects of Lifestyle on Preparation For Middle and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 [47] H. Suh, A Study on Middle-Aged men's job career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pouses for successful aged life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Doctoral Dissertation, 2011.
- [48] G. S. Shin,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Occupation and Activity Nature of the Middle-Aged on Retirement Prepa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1.
- [49] M. J. Bae, The Effect of individual, psychological and job-related variables on retirement expectations and preparations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5.

강 신 기(Shin-kee Kang)



- 2011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경영학 석사)
- 2013년 8월 : 호서대학교 박사과정 (노인복지학과)
- 2012년 9월 ~ 현재 : 열린사이버대학 및 상명대학 외래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재무 설계, 은퇴설계

· E-Mail : 8801drive@hanmail.net

조 성 숙(Sung-Sook Cho)



- 1975년 : 연세대학교 응용 통계학과 (경제학사)
- 1982년 :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석사
- 1987년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경제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금융경제복지, 고령친화산업 등

· E-Mail : sscho49@hoseo.edu